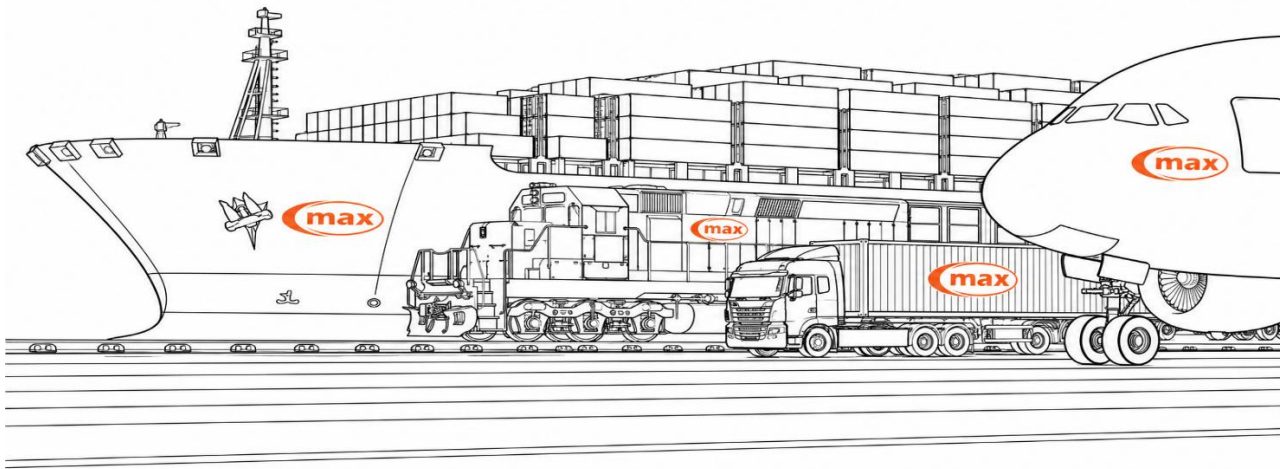




지점소식 ✈

🌸 서울지점

- 8 월부터 ORD 를 중심으로 미주향 Regular Charter 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공급 확보와 고객 대응을 위해 12 월까지 지속 운영할 예정
- 2026 년 9 월 24 일 ~ 27 일 : 추석 연휴

🌸 홍콩지점

- 2026 년 9 월 26 일 : The day following the Chinese Mid-Autumn Festival

🌸 타이페이지점

- 2026 년 9 월 25 일 ~ 28 일 : 추석연휴

🌸 도쿄지점

- 2026 년 9 월 21 일 : 경로의 날
- 2026 년 9 월 22 일 : 국민의 휴일
- 2026 년 9 월 23 일 : 추분

🌸 중국 전지점

- 2026 년 9 월 25 일 ~ 27 일 : 중추절 (9 월 20 일, 대체 근무)

🌸 페낭지점

- 2026 년 9 월 16 일 : 말레이시아의 날

🌸 하노이, 호치민지점

- 2026 년 9 월 1 일 ~ 2 일 : 베트남 국경절 연휴 (독립기념일)

🌸 애틀랜타지점

- 미주전역 물류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항공/해상 수출입, 트럭킹 (Drayage/OTR) 및 통관 서비스
- 애틀랜타 국제공항 및 서배너항 인프라를 기반, 조지아·남동부 지역 고객사의 물류 니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지 체계 구축
- 2026 년 9 월 7 일 : Labor Day

지역동향



🌸 서울지점

- 한국의 7 월 수출은 988.9 억 달러로 역대 두 번째 수준을 기록, 반도체 수출은 2 개월 연속 400 억 달러를 상회,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이어지며 관련 항공화물 수요도 견조한 흐름이 예상
- 미국은 관세·통관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조기 선적으로 전통적인 성수기 물량이 일부 앞당겨진 가운데 9~11 월에는 산업재와 재고 보충 물량을 중심으로 완만한 수요가 이어질 전망
- 미국·유럽의 소액화물 통관 규제 강화로 중국발 이커머스는 개별 직배송에서 현지 재고·Fulfillment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가 이커머스 물량은 둔화되는 반면 AI·반도체·산업재 등 일반화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EU 는 AI 기가팩토리 구축 등 첨단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장비·데이터센터 관련 고부가가치 화물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홍콩지점

- 연간 GDP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홍콩 정부가 상반기 실적 호조와 단기 경제 전망을 반영하여 2026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3.5%에서 3.5%~4.5%로 1.0%p 상향 조정

🌸 타이페이지점

- 대만 정부는 2026년 GDP 성장률을 11.05%로 전망, 1987년 이후 약 39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경제적 성과를 국민과 공유한다는 명분으로 2027년 1인당 NT\$10,000(약 44만원) 현금 지급 계획

🌸 도쿄지점

- 일본 경제는 2분기 실질 GDP가 0.3% 증가했으나 소비와 설비투자가 감소하며 내수보다는 자동차·AI·반도체 장비 수출이 성장세를 견인, 7월 CPI는 1.8%, 생산자물가는 7.2% 올라 비용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엔화 약세와 에너지 가격 상승이 소비를 압박하면서 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 일본인 인구가 17년 연속 감소하며 처음으로 1억2천만명 아래로 떨어진 반면, 외국인 주민은 약 35만 명 증가하여 사상 처음으로 400만 명을 돌파, 외국인 증가는 노동력 부족 완화에 기여하지만 정부는 지역사회의 수용 능력과 사회적 갈등을 고려해 체류자격별 인원 제한 및 외국인 인구 목표 설정 등을 검토하고 있음

🌸 페낭지점

- HSBC는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 베트남과 함께 동남아 주요 AI기술투자 수혜국으로 부상했다고 평가, 말레이시아는 세계 반도체 테스트, 패키징 시장의 약13%를 차지하고 있고 전공정보다 후공정에 비교적 경쟁력 보유
- 투자통상산업부(MITI)는 26년 7월19일 종료된 중국, 베트남의 사전도장, 도장, 컬러코팅 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재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몰재심 착수, 예비판정이 긍정적인 경우 필요한 수준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최종판정은 조사 개시 후 180일이내에 결정 예정

🌸 호치민지점

- 비엳젯항공, 기내 와이파이 투자 확대 :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도입계획
- 베트남 최대 민간社 빈그룹, 사모채 발행으로 한국서 최대 4,550억원 조달 추진
- 현대차, 베트남서 조립한 자동차 (크레타 7,600대) 멕시코 첫 수출

❁ 충청지점

- 2026 년 8 월, 충청의 월별 수출입규모가 812.6 억 위안에 달해 전년 대비 29.7% 증가
- 1~8 월 충청의 누적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은 5624.9 억 위안을 공식적으로 돌파하며 전년 대비 31.5% 증가하여 전국평균보다 14%p 상회

❁ 상하이지점

- 제 13 호 태풍 '돌핀'이 중국 동부 연안을 강타하면서 상하이 일대에 폭우와 강풍 피해가 발생, 상하이 도로·지하차도 100 여 곳이 침수되고 푸둥·홍차오공항 항공편 약 60% 가 취소되는 등 교통 전반에 영향을 미침
- 상하이전기그룹이 8 월 17 일 양산항에서 프랑스 선사 CMA CGM 컨테이너선에 8000 톤 규모의 그린 메탄올 벙커링을 완료하며 단일작업 기준 세계최대 기록을 달성, 상하이항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및 녹색 해운 허브로서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

❁ 광저우지점

- 26 년 상반기, 광둥성의 GDP 는 7 조 2,281 억 위안으로 전국 1 위를 유지, 2 위는 장쑤성으로 7 조 387 억 위안, 두 지역 모두 사상 처음으로 상반기 경제 규모 7 조 위안을 돌파했으며 두 지역의 경제 규모 합계가 전국 경제의 약 20%를 차지
- 광둥성 생태환경청은 지난 8 월 13 일, 선전 APEC 정상회의 기간 (11/18~1/19) 대기질 확보를 위하여 선전을 핵심 관리 도시로 지정하고 광저우·포산·주하이·둥관 등 9 개 도시를 중점 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힘

❁ 선전지점

- 선전시정부는 26 년 11 월 18 일부터 19 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는 APEC 정상회담을 '동아시아 허브'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 도시 인프라와 시민 의식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
- 기존의 고속 성장 모델에서 탈피하여 AI, 디지털 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에 자원을 집중하고 사회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서민 보호)과 금융권 역추진 (고소득 규제)을 통해 소득 양극화를 완화

❁ 밀라노지점

- 이탈리아는 2026 년에도 저성장 흐름이 이어질 전망, EU 집행위는 2026 년 실질 GDP 성장률을 +0.5%, 물가상승률을 +3.2%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7 년에는 성장률 +0.6%, 물가 +1.8%를 예상

❁ 애틀랜타지점

-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과잉 공급으로 침체됐던 물류창고 등 애틀랜타 산업용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추세, 6 월 말 기준 공실률 약 9% (2021 년 중반 3%보다는 높지만 역사적 평균 수준)

물류동향

서울지점

- 항공화물 시장은 8 월 평균 운임이 kg 당 약 3 달러 수준에서 보험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발 저가 이커머스 둔화와 AI·반도체·바이오·K-뷰티 등 고부가가치 화물 비중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9 월은 산업재·프로젝트 화물의 회복과 항공사 공급 조정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
- 북미 : 8 월 하계 휴가 영향으로 수요가 다소 약했으나 9 월부터 대형 산업재와 프로젝트 화물의 선적 재개가 예상되며 LAX 는 화장품·소비재, ORD 는 자동차부품·설비자재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수요 회복이 전망
- 유럽 : 하계 휴가와 중국발 전자상거래 약세 영향으로 전반적인 수요는 부진한 편, 일부 화장품·자동차부품 출하가 이어지고 있으며 항공사 공급 조정으로 운임은 노선별로 보험세 유지
- 중국·아시아 : 중국향 반도체 장비·부품 수요와 동남아향 반도체 관련 출하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으나 일본향은 휴가 시즌 이후 수요 회복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부산지점

- 동남아 항로는 7 월 말 기준 소폭 안정되었지만 중동 정세에 따른 유류비 상승 및 할증료 영향 지속되고 있고 미주 항로는 아시아-미주/유럽 우회 화물 증가 및 가톤 호수의 수위 저하 변수로 인해 파나마 운하의 체선 및 대기 시간 증가
- 파나마 운하 통과 항로의 Transit Time 증가와 Panama Canal Surcharge 등 추가 물류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 항로 이용 화주는 선적 스케줄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홍콩지점

- Cathay Group 2026 년 상반기 실적 발표 : 항공사, 캐세이퍼시픽과 캐세이카고의 여객 및 화물 운송량과 운항 편수가 증가, 홍콩익스프레스의 실적 개선을 통해서 캐세이그룹은 2026 년 상반기에 62 억 홍콩달러의 순이익을 기록

- Hong Kong Air Cargo, Hong Kong- Navi Mumbai International Airport (NMI) 화물기 운항 개시, 에어버스 A330-200F 및 A330-200P2F 화물기를 이용하여 홍콩과 나비 뭄바이 간 주 3 회 운항
- SF EXPRESS HONG KONG 은 VISA 와 제휴하여 DOORSTEP DIGITAL PAYMENTS 서비스 개시 : 스마트 휴대용 단말기를 장착한 배송 기사에게까지 비접촉식 결제 기능을 확장하여 택배 수령 또는 배송시 비자 카드로 운송비와 착불 결제를 할 수 있어 현금 결제를 대체할 수 있는 편리한 디지털 결제 방식으로 평가

✿ 타이페이지점

- 인천행 항공수요는 반도체 장비, 부품 등 설비 물량 (Over size) 화물 급증으로 공급부족 현상 심화
- HAN, SIN, PEN 등 동남아행 물량도 급증하여 항공운임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 호치민지점

- OZ 여객기 W/BODY 전환 이후 SGN 발 SPACE 문제없으며 항공운임도 큰 변동 없음

✿ 페낭지점

- 페낭 신규 항공물류 복합단지 (PILA, Penang International Logistics Aeropark) 프로젝트 추진,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페낭 항공화물 허브를 대규모 항공물류 복합단지 (Air Logistics Complex)로 확장할 계획이며, 2050 년까지 연간 50 만 톤의 항공화물 처리능력을 확보를 목표로 함. 1 단계 사업은 2029 년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며,우선 Free Commercial Zone (자유상업지역) 등급의 신규 항공화물 창고가 건설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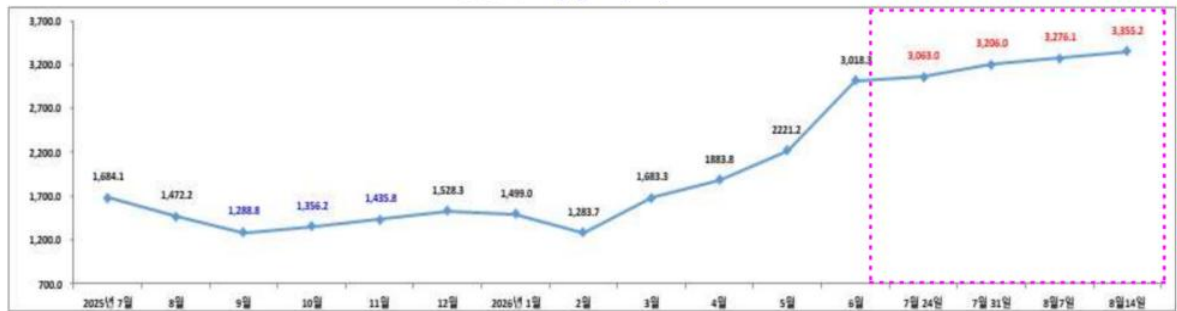
✿ 충칭지점

- 충칭 장베이 국제공항의 8 월 국제(지역) 화물물동량 2 만 1 천 톤을 돌파, 전년비 32.4% 증가하여 증가율 측면에서 전국 주요 항공화물 공항중 상위 3 위를 차지
- 8 월 충칭에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케냐 나이로비로 가는 두 개의 전용 화물 항로가 새로 개통되어 8 월 말 기준 충칭 장베이 공항의 실제 운항 중인 국제 및 지역 화물 항로는 총 28 개 (주간 운항 횟수 : 91 회)
- 8 월 노트북, 집적회로,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 항공화물 수출액의 59.3%를 차지했으며, 신에너지 자동차 핵심 부품, 생물 의약 시약, 고급 정밀 기기의 항공 수출입 물량은 전년비 각각 47.2%, 41.6%, 33.7% 증가

✿ 상하이지점

- 8월 14일 기준 상하이 컨테이너운임지수 (SCFI)는 3,355.24포인트로 전주 대비 2.4% 상승

했으며 주요 원양항로의 운임 상승세가 지속



- 상하이·닝보 등 화동지역은 8월 초 연이은 태풍과 물동량 증가로 항만 적체 및 운임 상승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선사의 기항 취소도 발생함. 이러한 상황은 국경절 연휴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중국 Sea Legend Shipping 은 북극항로(NSR)를 활용한 중국-유럽 정기 컨테이너 서비스를 추진 중이며, 2026년 8월-10월 3개월간 운영 예정. 운송기간은 약 20일로 기존 노선 대비 크게 단축되는 반면 운임은 일반 해상운송 대비 약 2배 높은 수준
- 2026년 상반기 상하이 수출입 항공화물은 203.51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6%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 푸둥 공항은 스마트 화물 터미널 및 통관 효율화와 함께 신규 국제 화물전용기 노선 7개 개설 및 3개 노선 증편을 통해 국제 항공물류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하고 있음
- 미주행 항공수요는 AI 관련 장비 및 기계·전자제품 수출 수요가 견조하여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운임은 여전히 높은 수준, 유럽 노선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물량 감소와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수요가 하락하고 있으며, 항공사들도 일부 항공편 취소 및 타 노선으로의 공급 전환을 통해 운항 공급을 조정하고 있음

🌸 광저우지점

- 중국발 이커머스 공급망, 직배송 모델에서 현지 풀필먼트 모델로 재편 가속화
 - 글로벌 패스트패션 플랫폼 쉬인(SHEIN)은 매출이 2021년 56억 달러에서 2025년 418억 달러로 급증하며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영업이익률은 2~4% 수준에 머물며 외형 성장 대비 수익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미국의 De Minimis(소액면세) 제도 종료와 통관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중국발 직배송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 재고 및 풀필먼트센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급망 전략을 전환
 - 유럽 역시 2026년 7월부터 저가 화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과 유사한 현지화 전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업계는 이러한 변화가 중국발 이커머스 항공화물 수요 감

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동시에 대량 콘솔 화물 운송 증가와 지역별 공급망 재편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

- 북미행 항공화물 시장은 서부행 AI 서버 등 프로젝트 화물 출하 지속 반면, 전자상거래 물량은 부진한 상태로 시장 운임이 소폭 하락하고 있고 중부행은 프로젝트 화물·자동차 부품·전자담배·대형 장비 등 일반화물 출하가 전반적으로 양호 수준 유지, 동부는 의류, 액세서리, 전자제품 등 일반화물 출하량은 다소 회복세이나 전자상거래는 약세 지속
- EU 저가 화물 규제 영향 본격화... 중국, 홍콩발 유럽행 항공 수요 및 운임 하락
 - WorldACD에 따르면 EU의 저가 이커머스 화물 규제 강화 이후 중국·홍콩발 유럽행 항공화물 수요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31주차 (8월 2일 종료 기준) 중국발 유럽행 물동량은 전주 대비 5%, 홍콩발은 3% 감소, 특히 홍콩발 물동량은 7월 기준 전월 대비 19%,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하였고 중국발 물동량 역시 전월 대비 3%, 전년 대비 6% 감소
 - 물동량 감소와 함께 운임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홍콩발 유럽행 스팟 운임은 6월 중순 kg당 5.80달러에서 31주차 4.96달러로, 중국발은 5.43달러에서 3.86달러로 하락한 반면 대만,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발 유럽행 운임은 여전히 전년비 3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
- 전미소매협회, 7월 미국 수입 전망치 하향 조정... 다만, 연말까지 견조한 수요 전망
 - 전미소매협회(NRF)는 7월 미국 수입 물동량 전망치를 기존 247만 TEU에서 221만 TEU로 10% 이상 하향 조정, 이는 전년비 약 8% 감소한 수준으로 관세 부과와 중동발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앞당겨 진행됐던 밀어내기 선적이 마무리되면서 조기 성수기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된 영향으로 분석
 - NRF는 올해 성수기가 전통적인 7~9월에서 앞당겨져 7월이 아닌 5월에 이미 연중 정점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수입 물동량이 완만하게 분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
- JOC, 파나마 운하 흘수제한 영향 경고... 선사 할증료 부과 외 미서안으로 화물 전환 예상
 - JOC는 파나마운하 흘수 제한 강화가 아시아-북미 항로의 성수기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며, 파나마운하의 갈수 현상이 심화될 경우 미동부행 전체 물동량의 약 5%가 LA/LB 항만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선사들은 우선 흘수 제한에 따른 적재량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각종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CMA CGM은 9월 10일부터 TEU당 500달러, MSC는 9월 12일부터 TEU당 149달러, ONE은 컨테이너당 150달러의 할증료를 적용할 예정

- 태풍 돌핀 여파로 상하이·닝보항 운영 차질 확대... 정상화까지 수주 소요 전망
- JOC는 태풍 돌핀(Dolphin)의 영향으로 상하이항과 닝보항이 지난 주말 동안 일시 폐쇄되면서 선박 스케줄 지연과 항만 적체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
- Linerlytica에 따르면 현재 240만 TEU 이상의 선박이 접안 대기 중이며, 적체 현상은 상하이·닝보항을 넘어 남중국 주요 항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고 특히 이번 태풍은 앞서 발생한 태풍 바비(Bavi)와 노을(Noul)로 인한 적체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에 발생한 만큼, 항만 운영 정상화와 적체 해소까지는 수주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선전지점

- 순펑항공 (SF)은 선전항 그룹과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 공급망 허브를 공동 구축하기로 합의, 전자상거래·신에너지차·첨단 제조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중점
- COSCO 선전 서커우 (蛇口)항에서 멜버른을 직행하는 A3X 노선을 개통, 이는 화남 지역 유일의 멜버른 직항로로 중·호주 수출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칭다오지점

- 최근 남화북운(南货北运), 북방을 통한 해외 수출 물량이 크게 증가, 즉 선전 등 화남지역의 9610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화물을 칭다오로 집결시킨 후, 칭다오발 한국·일본 노선에 연결하는 환적 허브 모델이 본격 가동 (2026년 1~7월, 칭다오 공항의 AIR & AIR 화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

❁ 텐진지점

- 텐진항은 남아프리카, 지중해 등 물동량이 많은 7개 국제 항로를 신설·증편하여 천진항의 컨테이너 항로 총수를 152개로 확대, 올해 상반기 천진의 수출액은 2,26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
- 올해 상반기 천진 빈하이 공항 전용 화물기 화물 우편 처리량은 3만 2,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 동기간중 임시 화물 전세기 항공편과 화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8.8%, 190.1% 증가
- 최근 텐진화항 (天津貨航)은 정저우-오사카, 파리엔-서울 화물기 신규운항을 개시, 기종은 B737 전용 화물기로 주로 전자상거래 화물, 일용 화학 제품, 전자 부품 등을 운송

❁ 밀라노지점

- 항공사의 FSC (Fuel Surcharge)는 국제유가 변동에 연동되어 5월 고점 이후 하향 조정 흐름을 보이며 8월 기준 EUR 1.25/kg로 4월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최근 국제유가

인상으로 LH, C8 등 외항사는 FSC 다시 올리는 추세 (4 월 EUR1.25/kg → 5 월 1.55 → 6 월 1.45 → 7 월 1.35 → 8 월 1.25)

- Maersk / Hapag-Lloyd (Gemini Cooperation) : 2 월 ME11 서비스에 이어 7 월 AE15,AE19 서비스가 희망봉 우회에서 수에즈 운하 경유로 전환, 8 월에도 추가 Gemini 서비스의 수에즈 복귀가 발표되는 등 단계적 확대 중. 현재 Port Tangier(모로코) 출발이며, 이탈리아 La Spezia 출발 선박 일부는 Port Tangier 과 Qingdao 에서 2 번 TRANIST SHIPMENT 조건으로 가능 (45~50day)
- 트럭킹 : 8 월 여름 휴가기간에는 일부 운송사만 독차 서비스 제공되었으며 실질적인 콘솔트럭 운영은 9 월부터 가능, 휴가시즌 이후 가동은 정상화되지만, 9 월 초 backlog 및 일부 운전자 휴가 복귀가 미뤄지면서 픽업 및 배송 지연 가능성이 있어 긴급 건은 최소 1 일 이상 여유기간 확보 필요

❁ 파리지점

- FSC 운임 인상 (KE/KJ) : 7/1 EUR1.35/KG → 8/1 1.25/KG → 9/1부 1.45/KG
- 프랑스내 트럭 운송 유류할증료 상승 영향으로 전반적인 내륙 운송비 인상 확대
- 해상 EFS (Emergency Fuel Surcharge)는 변동 없이 현수준 유지

❁ 애틀랜타지점

-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은 조지아주 및 남동부 전기차, 배터리 벨트 활성화로 인해 항공기 부품 (\$90.4억), 백신 및 의약품 (\$16.5억), 컴퓨터 및 IT 부품 등의 고가 화물 수출입이 집중
- 서배너항은 과거 50%에 달했던 중국 화물 의존도를 24%까지 낮추고, 인도 및 베트남 화물을 대거 유입하며 공급망 다변화에 성공, 최근 7월 물동량이 전년 대비 5.7% 증가하는 등 비수기 없는 호황으로 보이고 있으며 신속한 철도 연계 (Mason Mega Rail)서비스는 평균 20시간이 소요되어 타 항만 대비 압도적 속도를 보임

주요 항공사/선사 스케줄 변동사항 ✈

❁ 서울지점

- 주요 항공사들은 하계 비수기 이후 수요 변화에 맞춰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중국발 유럽항은 일부 감편이 이어지는 반면 미주·아시아 노선은 AI·산업재 및 프로젝트 화물 흐름에 따라 Space 상황의 노선별 편차 확대중

- 중동 노선은 일부 항공사의 운항 재개 및 증편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 항공시장에서는 네트워크 재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공급 변화 여부를 지속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홍콩지점

- HONGKONG AIR CARGO, 여객기 BELLY Space BSA Program for Australia (SYD & MEL) and Vancouver (Sep-Dec, 2026)

✿ 타이페이지점

- OZ, 9월 1일부로 한국행 FSC를 기준 현 NTD17 (USD0.53/kg)에서 NTD20 (USD0.62/kg)로 인상 예정

✿ 텐진지점

- 텐진지점 해운 서비스
 - 방콕(TICT/BMT) / 방콕(PAT) : 환적, 일요일 출항
 - 람차방 : 직항, 일요일 출항, 랏크라방 : 환적, 일요일 출항
 - 하이퐁 : 부산 경유, 수요일 출항 (EIS 적용: USD120/240)
 - 마닐라 : 부산 경유, 수요일 출항

✿ 애틀랜타지점

- 대한항공은 25년만에 미국 뉴저지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EWR) 노선 재운항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운항 중인 에어프레미어에 이어 유나이티드항공도 9월 취항 예정에 있어 미 동부 Belly cargo 공급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기타 공지사항



✿ 서울지점

- 미국·유럽 통관 규제 변화에 따라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류가 현지 Fulfillment 및 B2B 대량 입고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

✿ 상하이지점

- 상하이/닝보 항만은 연중 발생하는 출항 지연에 더하여 최근 태풍 등 기상 악화의 영향으로 선박 접안 및 출항 지연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선적, 운송 일정에 충분한 리드타임 필요

🌻 밀라노지점

- 9월은 이탈리아의 여름휴가 종료 후 기업·공장·유통망이 정상화되어 8월 대비 내륙 운송 및 창고 물동량이 회복되는 시기, 휴가철 이월 물량과 신규 발주가 겹칠 경우 9월 초 픽업·배송 리드타임에 여유를 둘 필요가 있음